지역 어메니티 촉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이영창 • 김근호*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A comparative case study of neighbourhood making
for promoting a local amenity

Lee, Young-Chang • Kim, Keun-Ho*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 The aim of the research was to analyze programs, outcomes, promotion process, and operation methods of neighbourhood making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gressive improvement directions in the future. Buk-gu in Gwanju city, samdeok-dong in Daegu city and dongpirang in Tongyeong city were selected for a comparative analysis. The main bodies of neighbourhood making for promoting a local amenity were analys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voluntary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s expected in the case of neighbourhood making led by the residents. However, a steady budget support from the outside wa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neighbourhood organization. For this, a voluntary agreement was required through the consultative group and committee formation. The member of civil organization has a limitation in the ability to develop and maintain continuous activities in the case of neighbourhood making led by a civil organization. This research found that operation methods including the constant checking, the search for new ideas through assessment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local festivals for a community formation and real satisfactions of residents' desires were needed in the neighbourhood making led by a civil organization. A participation rate in neighbourhood making was low in the case of neighbourhood making led by administrative bodies.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long-term strategies for space renewal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were important. Various easy way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o reflect their interests and operation systems were also needed. Finally, current local issues,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residents' opinions would be included in the process of neighbour making in the future.

Key words : Amenity, Neighbourhood Making, Residents' Participation

I. 서론

현대시민의 삶의 질이 도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중에 어메니티(Amenity)라는 요건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어메니티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자치단체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인환, 2008; 마은주와 박부미, 2008.). 따라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메니티 개념의 도입과 아울러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도시에 대한 질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메니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디자인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실질적 촉진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특히, 지

Corresponding author : Kim, Keun-Ho

Tel : 053-810-2976

Email : manchester99@ynu.ac.kr

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어메니티 축진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즉,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자 중심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관련 디자인개발을 통해 지역의 어메니티와 아이덴티티를 확립시키는 것에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인환,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고, 어메니티 형성 축진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던 국내사례들 중 마을만들기의 주요유형에 따른 대표적 사례 세 곳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각종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운영방식 등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어메니티 축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시행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고찰

우선 어메니티의 특성에는, Table 1과 같은 구분에 의한 주요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인환, 2008).

Table 1 어메니티의 주요 특성.

구분	특성
고유성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존재한다. ·지역에 묻혀있는 역사적 사실 또한 그 지역에만 존재한다.
비가역성	·훼손된 어메니티는 초기상태로 복원시키기 어렵다. ·한번 훼손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지출된다.
희소성	·희소성이 어메니티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 주된 이유다.
비경합성	·어느 누구도 전유할 수 없는 공공재적 속성을 지닌다. ·한 사람이 즐기거나 여럿사람이 즐기거나에 관계가 없다.
배제 불가능성	·특정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장 재와 달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활용가치가 있다.
무임 승차성	·소비의 비재제정으로 인해 가격 차별화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과소공급 가능성이 있어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어메니티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은 크게 어메니티가 발생 또는 생성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과 관련된 것

으로서 인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어메니티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있어서 주체 및 주도권에 의한 유형에 따라 Table 2와 같은 어메니티 지역개발유형으로 구분하였다(조순제, 1999; 이용연, 2004; 이훈규, 2004; 조득환과 김묘정, 2005; 김남두, 2006; 심재봉, 2006; 이명규, 2007; 박현옥, 2008; 김은경, 2012; 문종화와 장준호, 2012).

Table 2 어메니티 지역개발유형

추진 주체	추진 주체 세부 내역
주민	일반주민, 주민조직, 상인, 상인조직, 농민·학부모
행정(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기구,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주민참여 관련 시민단체, 주민복지관련 시민단체, 생태 환경관련 시민단체, 공동체 문화 관련 시민단체, 교육환경 관련 시민단체, 도시 관련 시민단체 및 교수, 전문기술가, 연구원 등

1.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수법

주민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추진 주체이며, 마을만들기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비물리적 지역 환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전문가나 외부인이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지역사회운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주역이 되는 세대 역시 과거의 경제발전만을 외치던 세대에서 자율성 또는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점차 바뀌어 나가면서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관 또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전의 생계유지를 위한 1차원적 방식으로 벗어나, 삶의 질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동안의 생활환경에 눈을 돌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 개개인이나 주민 조직이 문제를 제기하여 진행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경우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 유형은 일부 주민의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활동이 주변지역과 도시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시민단체 주도형 마을만들기 수법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은 마을만들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과 행정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행정의 편의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시민생활의 편의와 개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 간 마찰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경우,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면서 외부의 전문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또 활용하는 마을만들기로 체계적인 접근과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두 주체를 연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조직이나 단체가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외부지원형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문제 제기나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가 활동의 관건이 되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요구나 참여의지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일방적인 주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 활동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주민보다 외부지원의 요구로 출발한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행정주도형 마을만들기 수법

중앙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은 마을만들기의 지원자이면서 또 하나의 주체이다.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활동 조직 구성을 유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인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되는 마을만들기는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주민에게 제안하므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에 의한 일방

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반대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상호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한 합의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에서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도시 어메니티의 축진과정에 있어서 먼저, 그 주체의 성격을 행정 주도형, 주민 주도형, 시민단체 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부합되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은 예비대상지에 대한 사례 분류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이훈규, 2004; 김남두, 2006; 박현옥, 2008; 조윤미, 2011; 문종화와 장준호, 2012). 사례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의 척도를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척도로는 “실행주체(주민, 주민+행정, 행정+개발협의회, 주민+행정+전문가, 주민+NGO, 시민연대+NGO 등)”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류되도록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척도에는 어메니티 축진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가를 분류되도록 설정하였다. 이 때 세 부적 축진사업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골목길 만들기나 가로 만들기 또는 담장 만들기 같은 사업은 거시적(Macro)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선적구성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한편 담장벽화, 담장녹화 등은 면을 채우는 방식임으로 “면적구성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간꾸미기, 놀이방, 유아방 등의 만들기는 주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공간구성사업”이라고 정의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주로 프로그램이 중심임으로 “프로그램운영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요 척도의 설정을 통해 예비 대상 사례지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 “광주시 북구”, “대구 중구 삼덕동”, “통영 통곡리” 이상 세 지역이 공통적으로 선적구성사업과 면적구성사업, 공간구성사업, 프로그램운영사업을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어메니티 축진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목적과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광주시 북구 마을만들기 운동,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 운동, 경남시 통영 통곡리 마을의 사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Figure 1). 한편, 연구방법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써 어메니티의 특성과 유형 파악을 통해 어메니티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어메니티 축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수법에 대한 유형별 정립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범위에서 설정한 세 가지 사례지역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조사, 등을 실시하여 각각의 세부적 현황분석과 어메니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 어메니티 축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Figure 1 연구 대상지.

IV. 연구분석

1.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수법 : 대구시 삼덕동 마을 만들기

주민주도의 참여로 시작하여 정부와 함께 개발하면서 마을만들기란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초기단계의 사례이다. 삼덕동은 인구 5,800여명의 일반 주택가 중심이며 예전부터 학교들이 많아 교사들을 위한 관사가 많았다. 또한 현재까지 일제 점령기의 건물과 한옥들이 일부 현존하고 있다. 1998년 대구 YMCA 시민사업국장인 김정민씨가 자신이 살던 집의 담장을 허물면서 골목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주변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집 담장을 자발적으로 허물기 시작하였으며 담장 허물기에 동참한 삼덕동 주민들은 담장 허물기 외에도 자신들의 마을을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을의 소통의 공간인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회의를 통해서 발전시켰다. 현재 담장 허물기에서 시작된 삼덕동의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담장이라고 하는 열린 공간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이 싹트기 시작했고, 개개 인간의 단절돼 있던 동네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또한 담장허물기 1호인 삼덕동 201번지는 여러 차례 기능이 바뀌었고, 현재는 지역 아동 센터와 마을만들기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딸린 점포는 녹색가게로 이용되다가 일부공간은 2008년부터 희망자전거 수리 센터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인 피스트레이드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통해 어떠한 주요 프로그램이 지

Table 3 예비대상지에 대한 사례분류

위치	실행주체	어메니티 축진사업	본 연구대상지
동대문구 용두1동	주민	선적구성사업	
종로구 가화동 1번지	주민+행정	선적구성사업	
인천시 부평구	행정+개발협의회	선적구성사업	
경북 문경 영순면	주민+행정	선적구성사업	
강동구 천호2동 337	주민	면적구성사업	
광주시 북구	주민+행정(전문가 포함)	선적구성사업+면적구성사업+공간구성사업+프로그램운영	●
인천시 남구 용현3동	주민	면적구성사업	
서울시 강서구	주민+행정	면적구성사업	
마산시	주민+행정+전문가	면적구성사업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주민+행정	공간구성사업	
부산시 연제구	주민+행정	프로그램운영사업	
대구 중구 삼덕동	주민(NGO포함)	선적구성사업+면적구성사업+공간구성사업+프로그램운영	●
강동구 행당동	주민+행정	프로그램운영사업	
통영 통피랑	시민연대+NGO	선적구성사업+면적구성사업+공간구성사업+프로그램운영	●

선적구성사업 (골목길만들기, 가로만들기, 담장만들기 등)

면적구성사업(담장벽화, 담장녹화 등의 면채우기 등)

공간구성사업(공간꾸미기, 놀이방, 유아방 등 만들기)

프로그램운영사업(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

역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세 가지의 프로그램 성과를 알 수 있었다.

가. 다양한 종류의 골목길 벽화의 시도

삼덕동 벽화의 시작은 1999년 담장 허물기 1호집에 딸린 빈 점포에 녹색가게가 들어서고 미팅한 건물 벽면에 녹색가게라는 이미지와 재미를 넣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시작이었다. 작은 물물교환 센터인 녹색가게는 물건만 교류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이기에 녹색가게의 취지를 되살려 병뚜껑을 활용한 벽화를 구상했다. 그 밖에 마을의 경계 부인 큰길가에 접해있는 청소년 쉼터 벽화와 삼덕초등학교 벽화는 상대적으로 시선을 한눈에 끈다. 쉼터의 넓은 벽에 이루어진 벽화에는 색색의 타일과 타일을 가장한 병 조각들로 만든 벽화로 조성하였고, 삼덕초등학교 연못 벽화는 무대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다양한 벽화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벽화작업을 통해 삼덕동 주민들은 문화적 자긍심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Figure 2).

나. 공간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주요 공간시설

삼덕동에서 공간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빗슬미술관, 희망자전거 제작소, 마을미술관과 버스를 이용한 마을이동도서관은 마을 축제에서나 주민들의 모임의 중요한 공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빗슬미술관이 생기기 이전의 건물은 1938년에 개교해 70년의 역사가 있는 삼덕초등학교의 교장 관사였다. 또한 2007년 11월부터 대구 YMCA가 시작한 희망자전거 제작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리문화, 거리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2009년 9월 7일 노동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마을미술관은 오래된 적산가옥을 구입하여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버스를 리모델링한 이동도서관은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러한 시설들은 마을의 구심적 공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커뮤니티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류와 만남의 공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축제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지만 마을 미술관이 있어 지역 내의 쉼터가 되기도 하였다(Figure 3).

Figure 3 대구 삼덕동의 희망자전거제작소 및 빗슬미술관.

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축제

초기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밀어내려고 했던 삼덕동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쉼터를 마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상설 공연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이웃의 집, 공동의 장소, 골목 등을 이용해 삼덕동 축제 공연장으로 만들어나갔다. 삼덕동 마을 축제는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이자 공간 프로그램이다. 설치와 공연이라는 방식으로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 기억과 환상을 콘셉트로 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마을 전체를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장소 활용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공간의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구 에스페이스(dgespaces)의 습지 중심의 하천가꾸기 방식의 사업과 녹색가게에 위치한 피스트레이드(Peace Trade)의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Figure 2 삼덕동의 다양한 벽화.

2. 시민단체 주도형 마을만들기 수법 : 통영 동피랑 마을 만들기(지역의 잠재성을 살린 마을벽화사업)

통영은 조선업의 성장으로 1960 -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비탈길에 주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세병관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비탈 동피랑과 서쪽 비탈 서피랑이 있다. 동피랑 마을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과 태평동 일대의 산비탈마을로 23가구가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 주거지역이다. 마을 바로 앞 강구항과 바다가 보이며 중앙시장을 품고 있는 명당인 통영의 대표적인 산동네이며 ‘동쪽의 벼랑’이라는 뜻의 ‘동피랑’으로 불리는 작고 오래된 마을이다. 산동네라는 인식과 주거환경까지 악화되면서 빈 집이 곳곳에 남아 있는 소외된 지역이다. 벽화가 그려지기 전 동피랑 마을은 낡은 건물이 많은 곳으로 2006년 통영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통영시는 경관개선을 이유로 마을을 철거하고 충무공 이순신이 설치한 군영인 통제영의 누각 ‘동포루’를 복원하려고 계획하였다. 만약 동피랑의 무허가 주택이 대부분이라 철거되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사를 하더라도 동피랑의 집값으로는 통영에서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역단체 ‘푸른통영 21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저지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시장에게 1년의 유보와 시간을 요청하였고,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는 동피랑마을의 특성을 살려 각 주택들의 담장을 활용해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푸른통영 21’은 마을 철거를 막기 위해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골목문화를 보존하자”며 ‘색과 그림이 있는 골목’이라는 주제로 1차 벽화 공모전을 벌였다. 제 1회 벽화공모전 이후, 철거계획이 미뤄지자 동피랑이란 장소를 살리기 위해 벽화를 그리러 오는 미술가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2008년 7월 재개발 대상지에서 보존 대상지에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통영시는 당초 동피랑 마을의 23가구 전체를 매입해 동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관광명소를 꾸미려던 계획이 취소되었다(Table 4)(조윤미, 2011).

한편 통영의 청소년문화모임인 ‘드러머’의 자원봉사단도 주민동의에 걸쳐 함께 일주일동안 19채의 집과 골목

담벼락마다 벽화가 그려졌다. 각지에서 달려온 젊은 예술가들은 벽, 자투리 공간과 물탱크 등에 꽃봉오리는 물론 통영을 상징하는 통영대교와 김춘수의 시 ‘꽃’, 음악과 고깃배 등을 그려 넣음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인 통영의 지역성을 살릴 뿐 아니라 퇴색했던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2010년 4월 3일부터 11일은 ‘동피랑 블루스’라는 주제로 제 2회 벽화 공모전이 개최되었고, 1차 때와는 달리 통영지역에서 참가신청이 많았고 벽화전문가뿐 아니라 대기업홍보팀, 프로댄스팀, 음악전공자, 지역 언론사, 외국인, 주부, 화가 지망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동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통영시에서는 동포루의 계획을 취소하고, 동포루 복원에 필요한 집만을 철거하고 2채는 매점과 전시장으로 단장하였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이주를 바라는 집이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동피랑의 재발견’사업, 레지던시를 진행하였고,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주민들의 쉼터인 찜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 조성된 찜지교육장에서는 동피랑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핸드페인팅 벽화제작, 엽서 만들기, 숯대 만들기, 동피랑 옛 이야기 등이 있고, 그 외에 통영기상대 사진전시, 화단만들기 등이 있다. 이처럼 지금도 동피랑에서는 마을가꾸기에 대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의논되어지고 활동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벽화마을로 만들어진 후, 지속적인 벽화관리 뿐 아니라 마을가꾸기와 연관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설면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으로 제기되는 마을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푸른통영 21’은 주택매입에 대한 사항, 매입한 집의 활용방안, 주민소득원 마련 및 방안, 편의시설 설치 검토, 야간경관조명설치 등 시청 회의실에서, 때로는 마을의 골목과 언덕에서 마을가꾸기 추진위원장과 시관계자, 동장, 시민단체 사무국장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주민과 그 밖의 관계자들 간의 상설적인 협의체가 구성된 보다 성숙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4).

Table 4 동피랑 계획변경 과정

2006년	2007년 10월	2008년 7월	2010년 4월3일~11일
동포루 복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통영의 망루 동피랑의 재발견사업 추진	철거 계획 철회	동피랑 제 2회 벽화공모전: 동피랑 블루스

Figure 4 동피랑마을의 벽화 및 마을 전경.

3. 행정주도형 마을만들기 수법 : 광주시 북구 마을만들기

2000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한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은 관내 26개동에 차별 없이 균등한 사업비를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광주 북구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2003년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전국 1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해 9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모태가 되기도 했다. 행정이나 의회조직이 아닌 일반주민(주민자치위원)이 구(區)의 예산과 우선순위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그간의 마을만들기에서 광주 북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조례 +지원조직 +센터’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관련 전문가 행정의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마을만들기를 월등히 잘하고 있다고 단언키 어려운 것 또한 냉혹한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 요인으로 지방분권시대의 등장으로 자치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선출된 단체장의 지역의 사업에 관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사업은 자연 예산과 행정의 관심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되고 뒤로 밀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광주 북구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동안 일구어 놓은 다양한 성과물들은 타

지역 마을만들기 벤치마킹에 좋은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김은경과 민원기, 2008). 특히, 광주 북구의 시화문화마을은 마을 곳곳에 아름다운 시화(詩畵)가 있고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화(詩畵) 문화마을만들기’라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명칭이다(송혜승 등, 2008). 2000년 각화 화물터미널 앞 공터의 소공원조성사업인 쌈지공원을 시작으로 태동한 시화문화마을의 작은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의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시(市)의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쳐서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가. 외형적 공간꾸미기

담장의 의미를 날려버리고 그 빈 곳에 이웃 간의 정담과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가 시화문화마을에서 외형적인 공간을 꾸미는 중요한 철학이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1차원적인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작품과 물상에 ‘따뜻한 마음’을 담자는 것이다. 타인에게 적당히 감출 것은 감춰주고, 도둑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담장을 허물었을 때 주민들이 얻고 잃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다수의 참여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것이 시화문화마을의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시화가 적혀있는 타일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 벽을 두고 건물을 짓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시화문화마을의 작품 대다수가 주민들이 참여한 작품이거나 스스로 만든 작품이라 애착을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Figure 5).

Figure 5 담장 허물기와 벽화.

나. 시화백일장과 시화환경예술제 행사 개최

시화백일장은 관내 학생들을 포함한 광주 시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화를 공모해서 전시회를 열고 그 작품으로 마을을 꾸미고 책을 발간하는 작업이다. 유명한 시인의 작품과 어린 학생의 작품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목길에 부착되기도 하고 자신의 시나 그림이 책에 실리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성취감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지구온난화 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전 지구인의 숙명이자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 단계 성숙된 시화문화마을의 내실을 위해 시화환경 예술제라는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화환경예술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주민과 작가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 돈을 쓰는 소모성 축제가 아니라 지역 복지관에서 밸리댄스를 배우는 꼬마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으로 그 부모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식이다. 또한 폐품을 이용하여 허수아비를 만드는 행사 등 독특하고 모든 연령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작품을 활용전시 함으로써 2중 3중의 시너지를 얻는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해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 그 밖의 주변 공간 조성사업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완충녹지의 개발이나 고속도로 주변 잉여 토지의 활용, 사유지를 이용한 마을만들기와 텃밭 가꾸기, 8차선대로변에 위치한 주공아파트의 방음벽을 헐고 숲길과 물길 만들기,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들지 않고서도 주변 저수지의 수압차를 이용한 멋지게 물을 품어 올리는 분수, 사계절 물이 흐르는 실개천 만들기, 지역의 유치원과 학생들의 작품

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다리 교각 밑의 공간을 이용한 예술작품 전시장 및 쉼터 조성 등 다양한 공간 만들기를 통해서도 지역 어메니티를 실현하고 있다(Figure 6).

V. 결과 및 고찰

위와 같이 어메니티 지역개발유형별의 세 지역에 대하여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비교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의 세 사례의 비교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초기주체가 주민들이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 자치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마을 내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해결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의 주된 요인으로 주민조직의 활동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임으로 주민조직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혹은 정부의 꾸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발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추진으로 형성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시민단체의 일원들이 마을가꾸기와 연관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행정 및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시민단체가 시설면이나 주민생활 향상 면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자발적 마을만들기는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또 다른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지역의 주민참여 이후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모색하여야 하고, 공간적 프로그램 외의 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및 주민육구 충족의 실질적 반영방안 및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잉여가 창출되는 협동사업 등에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주관이 행정기관인 경우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의도처럼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것은 자칫 행정의 전시적 측면으로 도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개선의 방안으로 순차적인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일시적 개발의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공간재생 및 지역의 활성화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가 집단 및 관행행정기관 집단과 동등하게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참여통로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Figure 6 그 밖의 주변 공간 조성사업.

Table 5 주체별 대표 사례의 비교

지 역	대구 삼덕동	통영 동피랑	광주시 북구
프로그램 및 사업	다양한 골목길 벽화, 인형마임축제, 바리스타 교육, 도자기 만들기	빈 그릇운동 대회, 동피랑 1, 2차벽화전, 자전거 생활화 운동, 통영의 망루동피랑의 재발견 사업	전경벽화그리기, 독서마을만들기, 동양화가 있는 발 지압 보도 조성, 동네 신문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운영경로잔치
공간 이용 현황	마고재, 빗살미술관, 희망자전거제작소, 마을 이동도서관	체험학습을 위한 동피랑 쌈지교육장, 파고다 카페	골목사진미술관, 마을문고 조성,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속 상황	다양한사업 및 제안을 통한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대구에스파스, 피스트레이드의 다양한 프로그램	낡은 벽화들을 새로운 벽화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단체를 통한 벽화 공모전 및 다양한 활동	행정, 전문가집단의 연계조직으로 마을 삶터 가꾸기, 마을의 인재양성,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 참여 형식	간담회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 주민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우리가 만드는 도시계획’의 이미지 제고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계, 마을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추진	현재 자치정책과 내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계를 두어 운영, 공모전 방식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얻음
추진 이유	개발계획저지에서 지역 환경개선	개발계획저지에서 지역 환경개선	지역 환경 및 이미지개선

예를 들어 현재 현행공청회 방식에는 계획전문가나 행정 집행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그 개최시기도 일방적이며, 고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주민의견서 제출 기간이 너무 짧고 계획초기단계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없는 등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방식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는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고, 어메니티 형성 축진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던 국내사례들 중 마을만들기의 주도유형에 따른 대표적 사례지 세 곳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각종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운영방식 등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향후 바람직한 어메니티 축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시행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되었다.

1.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대가 가능함으로 지속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나, 주민 자치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많은 문제해결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조직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 지자체, 정부의 꾸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주민 협의체나 위

원회 구성을 통한 자발적 합의 구성체가 전제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시민단체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유지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중립성을 살려서 지역의 주민참여 이후 평가를 통한 진단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꾸준한 모색과 공간적 프로그램 외의 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및 주민육구 충족의 실질적 반영방안 및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잉여가 창출되는 협동사업 등에도 함께 모색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행정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칫 행정의 전시적 측면으로 도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므로 순차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공간재생 및 지역의 활성화 전략이 중요하며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관련행정기관 집단과 동등하게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참여통로를 넓혀주는 등, 지역 주민누구나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수가 제한적이고 사례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어메니티와 결부되는 일반적 전개방향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서의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남두, 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특성 분석,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2. 김은경, 2012, 도시문화프로젝트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7(523), 60-63.
3. 김은경, 민원기 2011, 브라보 My파트너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김-주민참여로 특화된 마을만들기 전형을 보여준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0(694), 52-55.
4. 김인환, 2008, 어메니티를 활용한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 보성각.
6. 마은주, 박부미, 2008,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개발사례연구 - 어메니티에 기반을 둔 국내·외 지역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9, 17-26.
7. 문종화, 장준호, 20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 논문집 37(1), 75-87.
8. 박현옥, 2008,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 표현특성 연구 - 대구 삼덕동, 광주 북구, 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4(4), 206-216.
9. 송혜승, 이명훈, 이명규, 2008,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10. 북구 문화동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3(3), 37-53.
11. 심재봉, 2006,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이명규, 2007, 광주광역시 북구의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과제, 광주광역시 북구.
13. 이용연, 2004,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 YMCA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14. 이훈규, 2004, 좋은 동네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 연구-광주YMCA와 북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5. 조득환, 김묘정, 2005, 대구광역시 마을만들기와 담장허물기의 연계방안, 대구광역시.
16. 조순제, 1999,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근린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2), 349-369.
17. 조윤미, 2011, 국내 벽화마을만들기의 성공요건 분석, 경원대석사학위논문.

접 수 일: (2013년 5월 22일)

수 정 일: (1차: 2013년 6월 4일, 2차: 6월 13일
3차: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21일)

■ 3인 익명 심사필